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4. Vol. 25. No. 4. pp. 271~299.
ISSN 1225-633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14.11.75.271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 및 자기분화 조절 효과 검증*

홍성희** · 이영실***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지각한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심리사회적 기제를 밝히고,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권 지역에 소재한 14개교의 중고등학생 86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그 중 835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이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형태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 부분측정동일성 검증 및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한 후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 비교 결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의 모애착 잠재평균 수준이 참조집단인 자기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의 잠재평균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효과크기는 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중간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자기분화 수준의 고저집단별 비교결과,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Sobel 검증에서 얻어진 Z값은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하여 이들 두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일치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 및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함의,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실천적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모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 자아탄력성, 자기분화

* 본 논문은 홍성희(2014)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였음.

** 성결대 사회복지학부강사, 제1저자
*** 성결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교신저자, ysl8585@hanmail.net

Ⅰ. 서 론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3)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2012년 학교폭력 가해율 12.6%, 피해율 12.0%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이 2011년에는 33.5%가 2012년에는 49.3%로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선행연구결과들(Monks, Smith & Swettenham, 2005; Marini, Dane, Bosacki & Ylc-Cura, 2006; Accordino & Accordino, 2011)을 보면 성별, 나이, 자아존중감 등 개인요인, 부모-자녀관계, 가정폭력 등 가정요인, 교사, 또래관계 등 학교요인, 유해환경, 대중매체의 폭력성 등 지역사회요인 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영향에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 가정요인인 어머니의 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Mallinckrodt & Wei, 2005; Wei et al., 2005; McElhaney et al., 2006; Miller et al., 2009; Moss et al., 2009)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이들 간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개인적, 가정적 요인들의 보호기제가 있다는 결과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보호기제로서의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Bowes, Maughan, Caspi, Moffitt & Arseneault, 2010; Donnon, 2010; Hofer, Eisenberg & Reiser, 2010; Rothon, Head, Klineberg & Stansfeld, 2011; Maria Sapounaa & Dieter Wolke, 2013)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 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오는 여러 외부적 문제를 스스로 잘 대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ofer et al., 2010). 그 다음 모애착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완충시키는 가정·사회적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 학교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신뢰감, 의사소통, 자기분화등과 같은 요인들 중 특히 Bowen(1976, 1978, 1982), Skowron과 Dendy(2004), Mallinckrodt와 Wei(2005)등은 자기분화가 자녀와 부모사이의 공생관계나 이중구속 메시지 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간에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 자기분화가 조절효과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피해경험과 관련 학교부적응, 학교문제, 가출, 자살, 양육태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애착과의 선행연구들은 있으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모애착에 자기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간접

변수로써 적용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지각한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심리사회적 기제를 밝히고,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피해경험, 모애착, 자아탄력성, 자기분화

1) 학교폭력피해경험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정의는 학교폭력의 다양한 정의에 근거하여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교폭력피해경험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생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집단따돌림,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폭력피해는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복합적인 상황 및 환경의 문제이므로, 이는 개인과 환경은 특정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고자 한다(Pincus & Mimahan, 1974; Bronfenbrenner, 1979; 이영실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언어폭력피해, 집단따돌림피해, 성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유형으로 나누었다.

2) 모애착

모애착은 Bowlby(1973)가 처음 유아와 모 간의 유대관계로 정의하면서 사용하였고, Ainsworth(1978, 1982, 1989)는 Bowlby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 하여 유아가 주 양육자에게 형성하는 애정적 결속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모애착의 정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모와 자식(청소년) 간의 상호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또는 애정적 유대감을 모애착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모애착은 개인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기본적인 초기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전 생애 동안 개인들 간에 형성되는 강한 정서적 애착의 발달과 변화를 설명하려고 한 애착이론에 근거(Erikson, 1963; Bowlby, 1982, 1988, 1989)하고자 한다. 애착은 심리·사회적 발달의 한 유형으로 개인 내면의 심리가 아닌 가족경험과 같은 대인관계에 대한 구성개념 틀(Ainsworth, 1989; McElhaney et al., 2006)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의 유형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 근거 및 요인분석을 통해 모애착의 유형을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세 가지로 나누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여러 정의를 보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개인의 적응을 위협하는 외적 상황에 적응하는 역동적 능력(Rutter, 1985, 1987), 개인이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인 적응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사회적 능력(Garmezy, 1993), 내적·외적 긴장에 맞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Klohnen, 1996) 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자아탄력성의 정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외적인 위험이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적응능력으로 보고자 한다.(추가) 이러한 정의는 '상황 안에서의 개인'으로 강점관점 이론과 체계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Block & Kremen, 1996; Harvey & Delfabbro, 2004).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자아탄력성의 요인을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으로 나누었다.

4) 자기분화

자기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Bowen(1978)의 가족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감정과 정서를 지적체계인 사고에 의해 적절히 통제하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심리내적 측면과 자신의 자기(self)를 타인의 정서에 융합하지 않고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는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Bowen, 1976, 1978, 1982).

자기분화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Bowen(1978, 1982)의 자기분화이론으로써, 이는 가족의 상호작용이라는 가족역동성과 성숙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각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 역기능을 유발케 하는 여러 기제들을 제시해 주는 이론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Bowen(1978)의 자기분화의 개념적 정의를 근거로 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정서적 반응,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다.

2. 선행연구

1)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

Marini, Dane, Bosacki and Ylc-Cura(2006)는 불안정애착을 가진 중학생 집단따돌림피해자들은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불안정한 모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Kristi Koiv(2012)는 학교폭력피해자는 학교폭력가해자나 학교폭력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안정된 모애착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했고 Bowes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따뜻한 가족관계에서 모와의 애착은 학교폭력피해의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Accordino와 Accordino(2011)는 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spelage와 Swearer (2003), Marini et al.(2006), Eliot and Cornell(2009), Kristi and Koiv(2012)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학교폭력피해자는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더 불안정한 모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Monks et al.(2005)의 선행연구에서는 모의 긍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방식과 애착관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특히 불안정한 애착은 자아탄력성을 낮

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Bowes et al.(2010)에서는 온정적인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자의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학교폭력피해경험자의 자아탄력성 증진은 가정환경 중 모애착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민하영, 이윤주와 이영미(2004)의 연구에서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에서 친밀한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수진과 이정윤(2012)의 연구에서도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희은(2012)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 보다 자아탄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고 안태용과 심혜숙(2009)의 연구에서도 애착은 자아탄력성과 상관 및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자기분화와의 관계

Bowen(1966, 1976, 1978, 1982)은 부모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적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및 자기 과거로부터 단절되려는 경향 즉 정서적 단절이 심하고 자기분화가 어렵다고 보았고 유혜경과 남현우(2010)는 애착의 하위요인인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기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박지선, 김남희와 천성문(2002)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동료에 대한 애착정도가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정서적 단절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애착이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치었으며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고 나보영과 정혜정(2008)의 연구에서 모애착과 자기분화 및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고 김갑숙, 전영숙과 이철우(2009)의 청소년의 모애착과 자기분화와의 연구에서 모애착이 높을수록 자기분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자기분화와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자아탄력성과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

Turner, Finkelhor and Ormrod(2006)는 또래괴롭힘 예방프로그램을 폭넓게 말해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고 Fergus와 Zimmerman(2005)는 집단괴롭힘에서 학교피해자들 중 일부분은 자아탄력성에 따라 집단괴롭힘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고 Maria Sapounaa와 Dieter Wolke(2013)는 학교폭력피해경험자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피해경험으로 인한 우울과 비행을 감소하는데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고 최윤정, 진혜경과 김종원(2001)의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은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낮았고 신체화 및 과잉행동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최연희와 김나영(2013)의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폭력피해경험와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자기분화와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

Bowen(1976)은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안정도가 높아 긴장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비행으로도 나타난다고 하였고 Arseneault et al.(2006), Keller and Whiston (2008)의 연구에서 자기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갈등에 직면하여 폭력 등 부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였고 Lopez et al.(1986)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기 가족, 특히 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못하여 즉,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 때 부적응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Miller et al.(2009), Lonardo et al.(2009)도 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할 때 대인관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 장경문(2011)의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환경에서 피해-가해 집단의 아동들이 자기조절능력의 측면에서 정서적 불안정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자기분화와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이다. 본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1일에서 10월 9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모집방법은 서울지역은 강남과 강북으로 경기지역 서남부권 10개교를 편의 표집하여 모두 14개교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86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 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총 835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학교폭력피해경험

학교폭력피해경험척도는 김은경(2012), 김민정(2010), 박재숙(2008), 이장익(2006)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학교폭력피해경험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Eigen-value)이 .10이상의 값으로 구성된 언어폭력(4문항), 집단따돌림(3문항), 성폭력(5문항), 사이버폭력(6문항)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전체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학교폭력피해경험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a)는 .829이다.

2) 독립변수 : 모애착

모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PPA)의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on : IPPA-R)에서 모애착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원척도와 동일하게 신뢰감(10문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감(6문항)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전체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모애착의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a)는 .919이다.

3) 매개변수 :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척도는 박은희(1996)가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척도와 O'Connell-Higgins(198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 값(Eigen-value)이 .10 이상의 값으로 구성된 대인관계(7문항), 활력성(6문항), 감정통제(5문항), 호기심(7문항)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자아탄력성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a)는 .941이다.

4) 조절변수 : 자기분화

자기분화척도는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Bowen의 이론에 근거로 하여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척도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 값(Eigen-value)이 .10 이상의 값으로 구성된 심리내적차원인 정서적 반응(3문항), 대인관계차원인 정서적 단절(3문항), 심리내적과 대인관계차원인 정서적 융합(4문항) 3개 하위요인으로 총 10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a)는 .848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으로는 모애착, 자아탄력성,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잠재변수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비교분석하는 다중집단 분석을 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위한 전제인 측정동일성 검증을 하였고, 계수차이검증과 구조동일화 제약방법을 활용하여 구조모형의 χ^2차이를 찾아 제시하였다. 주요 잠재변수 간의 자기분화 고저 수준의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고 Cohen의 효과크기도 함께 제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과 Bootstrapping을 통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자기분화가 낮은 집단에서는 독립변수인 모애착의 측정변수인인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은 .559~.727의 상관을 보였고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의측정변수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은 .516~.789의 상관을 보였고 종속변수인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측정변수인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은 .201~.542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기분화가 높은 집단에서는 독립변수인 모애착의 측정변수인인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은 .539~.753의 상관을 보였고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의측정변수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은 .718~.798의 상관을 보였고 종속변수인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측정변수인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은 .139~.530의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잠재변수 내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8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은 없으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된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각 주요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변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독립변수	신뢰감	—	853**	544**	396**	407**	329**	.330**	-.134*	-.160**	-.138**	-.140
	의사소통	.827**.	—	.539**	.346**	.383**	.275**	.309**	-.109*	-.107*	-.138**	-.165
	소외감	.524**.	.559**	—	.238**	.242**	.129*	.164**	-.121*	-.040	-.023	-.074

변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매개변수	대인관계	.316**	.256**	.131**	—	.888**	.766**	.798**	-.155**	-.211**	-.093	-.093
	활력성	.266**	.274**	.100*	.789**	—	.718**	.850**	-.133*	-.180**	-.106*	-.093
	감정통제	.209**	.228**	.129*	.593**	.516**	—	.763**	-.093	-.171**	-.113*	-.108
	호기심	.226**	.221**	.027	.625**	.730**	.575**	—	.067	-.128*	-.090	-.050
종속변수	언어폭력	-.189**	-.178**	-.111*	-.115*	-.168**	-.059	-.047	—	.530**	.139**	.291**
	집단따돌림	-.135**	-.097*	-.070	-.104*	-.157**	-.046	-.057	.542**	—	.169**	.305**
	성폭력	-.098*	-.086	-.075	-.033	-.053	-.113*	-.016	.409**	.201**	—	.401**
	사이버 폭력	-.124**	-.090*	-.098*	-.101*	-.117*	-.057	-.099*	.415**	.451**	.456**	—

*주: 대각선 위(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 N=358), 대각선 아래(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 N=477)
*독립변수: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 종속변수: 학교폭력피해경험; 조절변수: 자기분화; 매개변수: 자아탄력성
$*p < .05$ $**p < .01$ $***p < .001$

2.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

1)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모애착, 자아탄력성, 학교폭력피해경험 변수를 포함한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추정치는 표 2와 같이, χ^2= 287.442, df= 41, P= .000, TLI= .933, CFI= .950로,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3은 각 이론변인들에 대한 측정모형 결과이다(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경로계수, C.R.*). 분석결과, 잠재변수(이론변수)인 모애착, 자아탄력성, 학교피해경험을 측정하는 변수에 이르는

* C.R.(Critical Ratio)은 각 모수의 유의도 검정을 위한 값으로, 이 값이 1.96이상이면 p<.05 수준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잠정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경로는 .00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모애착, 자아탄력성, 학교폭력피해경험 등 3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이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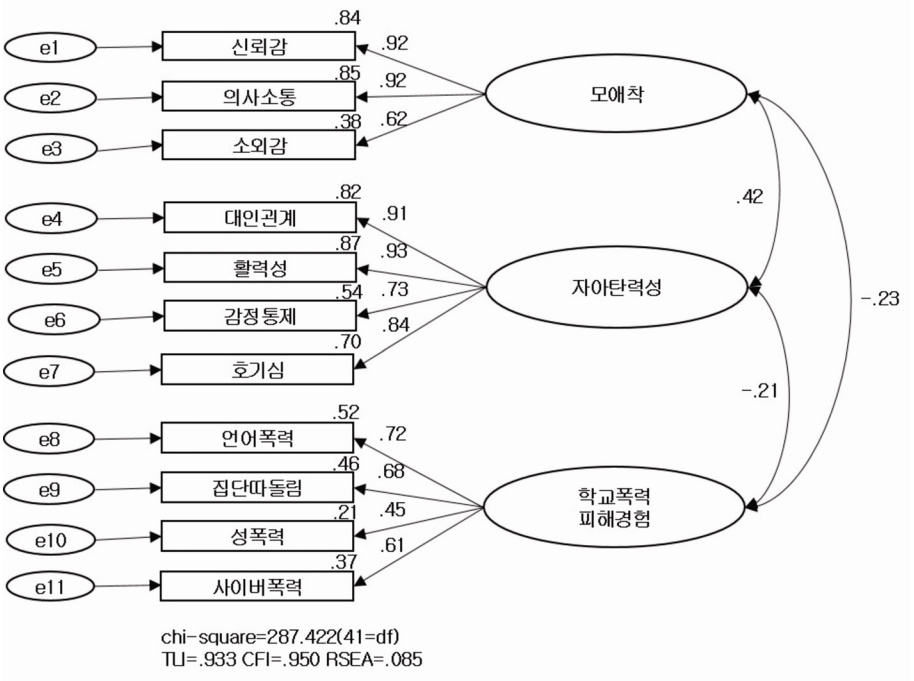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분석결과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287.442	41	.000	.933	.950	.085

표 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t값)
신뢰감	←	모애착	1.000	.917		
의사소통	←	모애착	1.283	.924	.039	32.511***
소외감	←	모애착	.506	.619	.025	20.063***
대인관계	←	자아탄력성	1.000	.907		
활력성	←	자아탄력성	.937	.934	.022	42.674***
감정통제	←	자아탄력성	.585	.733	.022	26.616***
호기심	←	자아탄력성	.939	.839	.027	34.194***
언어폭력	←	학교폭력피해경험	1.000	.718		
집단따돌림	←	학교폭력피해경험	.545	.681	.040	13.776***
성폭력	←	학교폭력피해경험	.391	.454	.037	10.525***
사이버폭력	←	학교폭력피해경험	.521	.605	.040	13.119***

$***p < .001$

2)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전체집단(자기분화 수준의 고집단과 저집단)을 대상으로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이르는 경로를 구조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χ^2=287.442, df=41, P=.000, TLI=.933, CFI=.950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절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287.442	41	.000	.933	.950	.080

표 5는 전체 연구모형의 이론변수 간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분해결과로 전체 조사대상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5

전체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분석

전체모형경로	총효과 (표준값)	간접 효과 (표준값)	간접 효과 (표준값)	유의도 검증		
				95% 신뢰구간		P
				하한값	상한값	
학교폭력피해경험← 자아탄력성 ←모애착	-.040*** (-.235)	-.030** (-.179)	-.009** (-.055)	-.018	.003	.004

*$p < .05$ ***$p < .001$

그 결과는 '모애착'→'학교폭력피해경험'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 r=-.055($p < .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효과는 r=-.179($p < .01$), 총효과는 r=-.235($p < .001$)로 유의성이 검증이 되었다. 따라서 전체집단의 연구모형에서 자아탄력성이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사이에서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p = .004$)이 검증되었다.

그림 2는 잠재변수(이론변수)의 모수추정 결과이다(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C.R., SMC*). 내생변수인 자아탄력성의 변량이 모애착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는 18%이고, 학교폭력피해경험의 변량이 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는 7.0%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에 이르는 모애착의 표준화된 경로가 .42($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이르는 표준화된 경로에서는 모애착이 -.18($p < .001$), 자아탄력성이 -.13($p < .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자승치)는 내생변수의 변량이 예측 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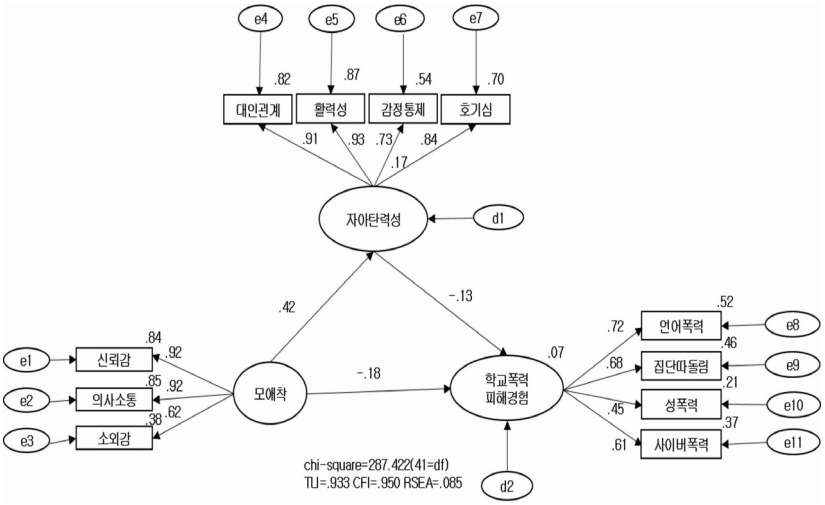


그림 2. 모애착,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경로

3) 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형태동일성 검증에서는 형태동일성의 경우 TLI 값 .928, CFI 값 .946, RMSEA 값 .061 로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여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나타냈고 측정동일성 검증에서도 TLI 값 .931, CFI 값이 .944, RMSEA 값은 .059로 형태동일성에서 살펴본 적합도에 비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형태동일성 모형의 차이가 유의한지에 대한 결과는 자유도 차이 8의 임계치 값(15.50, 유의도 .05수준)보다 카이자승치 차이값 χ^2=8.727($p > .05$)이 훨씬 적어 측정동일성 및 교차타당성이 수용되었다. 그다음 절편동일성 검증에서는 χ^2 차이 값이 자유도의 차이에서 유의미하였고, TLI, CFI, RMSEA 값이 모형 2의 측정동일성 모형의 값보다 나빠졌기 때문에 검증된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다.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두 집단의 요인계수를 수정지수(MI)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큰 추정치로 나타난 '모애착 3'과 '탄력성 4' 관측변수가 절편동일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수의 동일화제약조건을 해제하고 부분절편동일성 모형을 다시 추정하였다. 그 결과, TLI값 .936, CFI값 .944, RMSEA값 .057로 측정동일성(모형 2)보다 좋은 적합

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산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요인분산동일성(모형 5)과 부분절편동일성(모형4)의 적합도 지수가 더 좋아졌다. 표 7의 모형 간 비교를 통한 동일성 검증에서도 자유도 차이 3의 임계치 값(7.815, 유의도 .05수준)보다 카이자승치 차이값 χ^2=2.933($p > .05$)이 훨씬 적어 요인분산동일성 및 교차타당성이 수용되었다. 이는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면서 Cohen의 효과크기(d)를 제시할 때, 공통된 표준편차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6

자기분화 고저에 따른 동일성 검증

	χ^2	df	P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344.299	82	.000	.928	.946	.061
모형2: 측정동일성	353.026	90	.000	.931	.944	.059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389.652	98	.000	.930	.938	.060
모형4: 측정 및 부분절편동일성	357.579	96	.000	.936	.944	.057
모형5: 측정, 절편 및 요인분산동일성	360.512	99	.000	.940	.945	.052

표 7

모형 간 비교를 통한 동일성 검증

	$\Delta\chi^2$	Δdf	P	결정
모형 1과 모형 2	8.727	8	.366	채택
모형 2와 모형 3	36.626	8	.000	기각
모형 2와 모형 4	4.553	6	.602	채택
모형 4와 모형 5	2.933	3	.402	채택

4)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 비교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표 8 참조). 표 6의 모형5는 Cohen의 효과크기를 구하기 위해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요인분산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부분절편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요인분산 동일성 역시 확정되었다.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 비교 결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의 모애착($p < .05$) 잠재평균 수준이 참조집단인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p < .001$)의 잠재평균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효과크기는 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중간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표 8
자기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잠재평균 및 효과크기

	잠재평균차이분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		효과크기
		평균값	표준오차	
학교폭력피해경험	0	.277*	.132	.171
모애착	0	-2.488***	.345	-.532
자아탄력성	0	-1.983***	.307	-.473

*$p < .05$ ***$p < .001$

5) 자기분화 수준의 고저집단별 비교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3개의 경로계수 각각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χ^2 변화량을 검증하였다. χ^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면, 그 모수에 대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는 경로계수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모형의 자유도 차이 2에서 임계치 값(5.99, 유의도 .05수준) 이상이면 유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모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직접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적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3개의 경로가 각각의 집단에서 개별적으로 추정되었다. 두 집단에 있어, 모애착→학교폭력피해경험, 자아탄력성→ 학교폭력피해경험, 모애착 →자아탄력성에 주는 직접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다중상관자승(SMC)은 .187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다중상관자승(SMC)은 .076으로 나타났다.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β=.430($p < .001$),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β=-.171($p < .05$),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β=-.155($p < .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자기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구조모형 및 경로계수 비교결과

직접효과	χ^2	$\Delta\chi^2$	개별표본분석의 경로계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SMC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SMC
자아탄력성 ← 모애착	339.924	5.625	.430*** (.053)	.433	.187	.252*** (.038)	.328	.108
학교폭력피해경험 ← 자아탄력성	344.550	10.251**	-.015* (.007)	-.171	.076	-.036* (.017)	-.177	.06은
학교폭력피해경험 ← 모애착	343.004	8.705*	-.016* (.007)	-.155		-.039** (.013)	-.126	

*$p < .05$, **$p < .01$, ***$p < .001$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다중상관자승(SMC)은 .108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과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다중상관자승(SMC)은 .062로 나타났다.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β=.328($p < .001$),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β=-.177 ($p < .05$),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β=-.126($p < .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6) 자기분화 고저 집단 간의 간접효과 비교

표 10은 이론변수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결과이고, 그림 3은 측정변수와 이론변수들의 모수추정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경로 도해로써 집단 간의 최종 구조모형도로 모애착, 자아탄력성 및 학교폭력피해경험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모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 r=-.074($p < .0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없고, 총 효과는 r=-.229($p < .01$)로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p = .043$)이 검증되었다.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모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 r=-.041($p < .05$), 직접효과 r=-.177($p < .001$), 총효과는 r =-.218($p < .001$)와 같다.

표 10

효과분해와 간접효과 유의성(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

경로		총효과 (표준값)	직접 효과 (표준값)	간접 효과 (표준값)	유의도 검증		
					95% 신뢰구간		P
					하한값	상한값	
자기 분화 고집단	학교폭력피해경험 ← 자아탄력성←모애착	-.022** (-.229)	-.015 (-.155)	-.007* (-.074)	-.024	.000	.043
자기 분화 저집단	학교폭력피해경험 ← 자아탄력성 ← 모애착	-.048*** (-.218)	-.039*** (-.177)	-.009* (-.041)	-.022	-.001	.019

따라서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사이에서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p = .019$)이 검증되었다. 모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경로에서도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추정값, -.074)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추정값, -.041) 모두 신뢰구간 95%에서, 두 경로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이 두 경로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추정치 그리고 신뢰구간에 의한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10의 내용과 동일하다.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Sob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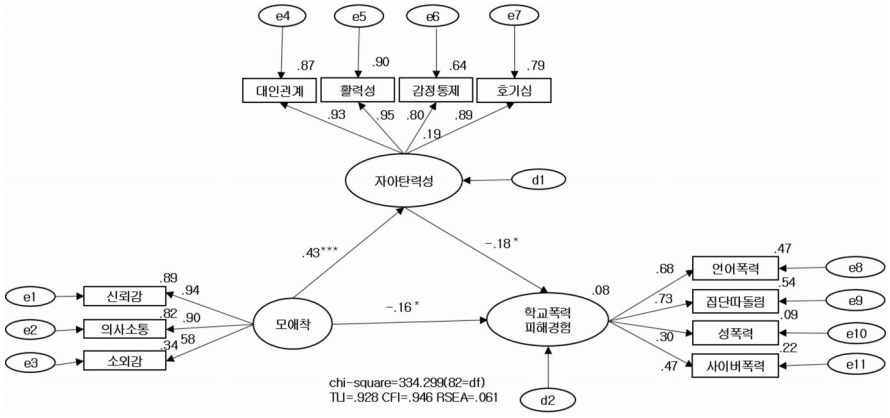
검증에서 얻어진 Z값은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2.072($p = .038$)로 $p < .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Z값이 −2.542($p = .011$ $p < .001$)로 유의미하므로, 이들 두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입증되었다. 또한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경험수준에 직접효과(자기분화 고집단: -.155; 자기분화 저집단: -.177)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할 경우,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총효과: 자기분화 고집단: -.229; 자기분화 저집단: -.218)을 한층 더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피해경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표 11 참조). 자아탄력성은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피해경험 감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간접효과 유의성(Sobel 검증)

경로	자기분화 높은 집단		자기분화 낮은 집단	
	Z	*P*	*Z*	*P*
학교폭력피해경험 ← 자아탄력성 ← 모애착	-2.072	0.038	-2.542	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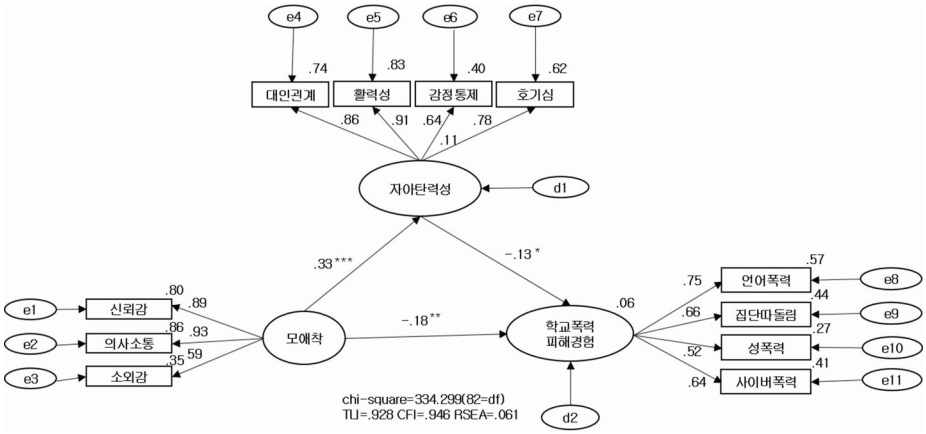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



*$p < .05$, **$p < .01$, ***$p < .001$, (표준화추정치)

그림 3. 집단 간의 최종 구조모형도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



$*p<.05$, $**p<.01$, $***p<.001$, (표준화추정치)

그림 3. 집단 간의 최종 구조모형도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연구의 분석결과내용을 토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저수준 자기분화 집단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연관이 있음을 연구한 선행연구들(Bowes et al., 2010; Walden & Beran, 2010; Accordino & Accordino, 2011; Kristi Koiv, 2012;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박진영, 채규만, 2011; 정현주, 2011; 김선주, 김영희, 2012)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Knowles(2009), Bowes et al.(2010), Swanson et

al.(2011), Taylor et al.(2014), 안태용과 심혜숙(2009), 하명선 외(2009), 오미경, 안지영과 김지신(2011), 박현주와 김봉환(2011)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므로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교폭력 피해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이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사이에서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Bowes et al.(2010), 한은수와 김춘경(2013) 최연희와 김나영(2013)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자아탄력성 변수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피해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 →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모애착 →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직접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적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에서 자기분화조절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자기분화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안정적이고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의 갈등이 적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낮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며(Bowen, 1982; 남상철, 유영달, 2007; 윤선미, 2010) 이는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간의 자기분화가 이론적 관계가 성립됨을 유추할 수 있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와 사회복지 실천적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함의

첫째, 본 연구는 다집단 분석에 근거하여 '자아탄력성'→'학교폭력피해경험'과 '모애착' →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직접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적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조절효과가 밝혀진 것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적 함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자기분화 수준의 차이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기분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자아탄력성증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상담이나 개별 및 가족치료의 적용을 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피해경험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나 예방책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 중 모와의 신뢰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며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방향제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2) 한계점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일부지역의 중고등학교의 연구결과를 동질적인 집단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둘째, 학교폭력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 자아탄력성, 자기분화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요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또 다른 환경적 변수와 개인내적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횡단적 연구를 하였으나 종단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도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리라 본다.

3) 제언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직접적 영향을 주므로 모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모-자녀와의 애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강화 및 수준별 자기분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천적 개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대인관계훈련, 활력성 증진 프로그램, 감정통제 조절 및 소외감 극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자기분화수준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기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차이가 있었다. 학교폭력피해예방 위한 자기분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학교폭력피해경험 청소년들에게 폭력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애착, 자아탄력성, 자기분화프로그램을 학교폭력피해경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선애 (2007). 가정, 학교, 친구 관련변수와 학교폭력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4(**1), 101-126.

김연화, 한세영 (2010). 또래괴롭힘 행동경향성에 관련된 개인, 가족 및 학교환경변수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8**(2), 1-17.

나희정, 장윤옥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서 미치는 경험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5**(1), 137-153.

안태용, 심혜숙 (2009). 아동, 청소년상담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모애착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상담학연구, 10**(4), 2383-2396.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경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연구. **아동교육, 20**(3), 165-180.

유혜경, 남현우 (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 애착, 또래애착, 성역할 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7**(6), 215-223.

오주, 아영아 (2006).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 피해 중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2**(1), 79-100.

장경문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아분화수준이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5**(1), 9-108.

정경연 (2007). **부모 및 자녀의 분화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세대 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최연희, 김나영 (2013).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2), 214-224.

최인재, 백혜정 (2008).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ccordino, D. B., & Accordino, D. B. M. P. (2011). An Exploratory Study of Face to Face and Cyberbullying in Sixth Grade Students. *American Secondary ducation, 40*(1), 14-30.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Arseneault, L., Walsh, E., Trzesniewski, K., Newcombe, R., Caspi, A., & Moffitt, T. E. (2006). Bullying victimization uniquely contributes to adjustment problems in young childre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cohort study. *Pediatrics, 118*(1), 130-138.

Baker, E., Beeh, A., & Tyson, M. (2006). Attachment disorganization and its relevance to sexual offend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21,* 221-231.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2.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London: Jason Aronson. Inc.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London: Jason Aronson.

Bowes, L., Maughan, B., Caspi, A., Moffitt, T., & Arseneault, L. (2010). Families promote emotional and behavioural resilience to bullying: Evidence of an environmental effe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809-817.

Bowlby, J. (1988).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67-69.

Bowlby, J. (1989). *Secure and insecure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A., & Ainworth, M. D. S. (1991). An ethological approach to personality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4), 333-341.

Espelage, D., & Swearer, S. M. (2003). Research on school bullying and victimization: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School Psychology Review, 32,* 365-383.

Fergus, S., & Zimmerman, M. A. (2005). Adolescent resilienc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ealthy development in the face risk.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6,* 300-419.

Gardner, D. H., & Parkinson, T. J. (2011). Optimism, self-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of relationships among workload, stress, and well-being in Veterinary students. *Journal of Veterinary Medical Education, 38*(1), 60-66.

Harvey, J., & Delfabbro, P. H. (2004). Psychological resilience in disadvantaged youth: A critical overview. *Australian Psychologist, 39*(1), 3-13.

Hofer, C., Eisenberg, N., & Reiser, M. (2010). The role of socialization, effortful 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French adolescents'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3), 555-582.

Juvonen, J., Nishina, A., & Graham, S. (2001). Self-views versus peer perceptions of victim status among early adolescents.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pp.105-124). New York: Guilford Press.

Kolar, K. (2011). Resilience: Revisiting the concept and its utility for social researc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ddiction, 9,* 421-433.

Kristi Koiv (2012). Attachment styles among bullies, victims and uninvolved adolescents. *Psychology Research, 2*(3), 160-165.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constru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107.

Laible, D. (2007). Attachment with parents and peers in late adolescence: Links with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185-1197.

Mallinc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58-369.

Maria Sapounaa & Dieter Wolke. (2013). Resilience to bullying victimization: The role of individual, family and peer characteristics. *Child Abuse & Neglect, 37*(11), 997-1006.

Marini, Z. A., Dane, A. V., Bosacki, S. L., & Ylc-Cura. (2006). Direct andindirect

bully-victims: Differential psychosoci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involved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Aggressive Behavior, 32,* 551-569.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Masten, A. S., & Wright, M. O. (2010). Resilience over the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resistance, recovery, and transformation. In J. W. Reich, A. J. Zautra, & J. S. Hall (Eds.), *Handbook of adult resilience: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John Wiley.

McElhaney, K. B., Immele, A., Smith, F. D., & Allen, J. P. (2006). Attachment organization as a moderator of the link between friendship quality and adolescent delinquenc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8*(1), 33-46.

Miller, H. V., Jennings, W., Alvarez-Rivera, L. L, & Lanza-Kaduce, L. (2009). Self-control, attachment, and deviance among Hispanic adolesce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77-84.

Monks, C. P., Smith, P. K., & Swettenham, J. (2005). The psychological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preschool: Social cognitive skills, executive function and attachment profiles. *Aggressive Behavior, 31,* 571-588.

Skowrn, E. A., & Dendy, A. K. (2004). Differentiation of self and attachment in adulthood: Relational correlates of effortful control.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6,* 337-357.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2006). The effect of lifetime victimization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2,* 13-27.

Wright, M. O., & Masten, A. S. (2005).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Fostering positive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adversity (eds) *Resilience in children,* 17-37.

ABSTRACT

The effect of mother attachment a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Hong Seonghee* · Lee Youngsil*

This study aims to better reveal the psycho-social mechanisms inherent within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to then develop effective prevention programs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mother attachment.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s of high and low self-differentiation.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14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Do, And 835 participants were used. First, all three measured variables of the latent variables were found to be structured properly. Second, this analysis confirmed the homogeneity of the groups. Third, mother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go resilience in both groups. Fourth, the Z-values taken from the Sobel Tes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both high and low levels of self-differentiation. This study explain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at the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cy levels and finally made a number of suggestions for both practice and policy in social welfare.

Key Words :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ego resilience, mother 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투고일 : 2014. 9. 15, 심사일 : 2014. 11. 3, 심사완료일 : 2014. 11. 10

* Sungkyul University.